

업계동정

大韓電線(株), 리본 광섬유용 다심 기계식 광접속자 상용화

리본 광섬유를 쉽고 빠르게 접속할 수 있는 다심 기계식 광접속자가 국내 최초로 大韓電線(株)(代表: 兪彩濬)에 의해 상용화 되었다.

한국통신 등과 공동으로 '93년 개발에 착수하여 올해 한국통신의 상용 시제품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미국의 3M社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번에 개발된 리본 광섬유용 다심 기계식 광접속자는 8심형 리본 광섬유를 일괄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광섬유 접속에 사용되어 왔던 용착 접속방식과 비교하면 高價의 접속장치가 필요하지 않고 커넥터 접속시 광섬유 끝단면을 연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단시간內에 접속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또 접속손실이 0.2dB이하, 반사손실 40dB

이상으로 -40~+75℃의 최악의 환경하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특히 광섬유 부분과 광섬유코팅 부분을 이중으로 클램핑하는 구조를 채택하여 광섬유 여장처리시 발생할 수 있는 광섬유의 비틀림 현상에 의한 취약한 부분의 파단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반복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됨으로써 외국제품에 비해 품질 및 기능면에서 훨씬 우수한 장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의 핵심인 리본 광케이블의 사용이 본격화 되면 기간 전송망 및 광가입자망의 구축에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는 내다 보고 있다.

한편 대한전선은 지난 '96년 단심 기계식 광접속자에 대해서도 이미 한국통신의 상용시제품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이 제품을 양산·판매 중에 있다.

(株)엔케이전선, 을 수출 3천만 달러 목표

(株)엔케이전선(代表: 洪政植)은 올해 수출을 지난해의 1천2백만달러에서 3천만달러로 2.5배 늘려 전체 목표 매출액 1천억원의 40%

이상을 수출로 충당기로 했다.

이같은 계획은 내수시장 침체에 따라 수출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아프리카·동유

럽·남미 등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첫 결실로 최근 아프리카 케냐와 3백50만 달러어치의 전력케이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적중에 있다.

엔케이전선은 지난해 9백 49억원의 매출액에 세후 순이익 12억원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국내시장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수출증대를 통해 1천억원의 매출액에 30억원의 순이익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동사는 호주시장에서 국내 전선업체중 수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힘입어 올해중 호주 4대 전선 제조 및 판매업체인 smi 케이블사에 출자, 호주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고 뉴질랜드, 피지 등지로 수출 시장을 확대키로 했다.

엔케이전선은 케냐에 이어 탄자니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과 수출상담을 진행중

이며 루마니아, 체코 등 동 유럽국가들과 러시아에 대한 수출채비도 서두르고 있으며 지난 2월 24일부터 열린 미얀마 전기박람회에 도 한국업체로는 유일하게 참가하여 이미 2백만달러 어치를 수주해 놓고 있다.

엔케이전선은 국내업체들이 제대로 진출하지 않은 신규시장에서 수출 1위 기업으로 올라선다는 목표아래 최근 영업사원의 50%를 수출부로 배치하는 등 총력 수출체제를 구축했다.

한편, 엔케이전선은 지난 '96년부터 노사협력하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 설비개선과 인력절감, 아웃소싱 확대 등을 통해 1인당 연간 생산액을 '96년 3억원에서 지난해에는 5억원 선으로 끌어올려 국제경쟁력을 크게 강화했다.